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7년 7월 28일(금)  
(음력 6월 6일)  
Пятница  
28 июля 2017 г.  
№ 29(116746)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7월 28일은 루시의 건국일이다.

(이예식기자 사진첩에서)

## 단신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첫 극동 사반투이 개최

지난 22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 <스파르타크>경기장에서 극동 <사반투이> 축제가 진행되었다. <사반투이>는 사랑과 희망의 상징으로 봄경작의 마감을 기념하는 타타르인들과 바쉬키르인들의 민족축제로서 현재는 러시아 동방의 주민들과 민족들의 정신적 단합을 의미하는 명절이다.

축제 참가자들을 환영하며 올레그 코제야코 주지사는 이 축제는 사할린주에 러시아의 수많은 민족들이 평화와 협력 속에 사는 지역임을 확증하고 축제는 문화생활의 한 부분으로서 사할린은 민족의 축제와 전통을 소중히 보존하고 있다고 했다. 주지사는 사반투이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했다. 무대에서는 타타르스탄 루스탐 미니하노브 대통령이 사할린의 축제 참가자들과 관광객들에게 음성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축제는 섬지역 예술인들과 타타르공화국 인기가수들의 공연, 전시회, 민족요리 시식, 박람회, 민족놀이, 민족운동 등으로 이어졌다.

### 사할린과 중국: 양식, 관광 및 임산업 폐기물 활용 문제로 협력 전망

지난 주 블라디보스토크 중화공화국 총영사관 웨니빈 야니 총영사가 사할린주를 방문했다. 21일(목) 그는 사할린주 올레그 코제야코와 만나 상호협력문제를 논의했다.

현재 중국은 사할린주의 주요 무역 파트너 중 하나로 2016년에 양 지역 간 교역은 600억루블리에 달했다. 사할린은 중국으로 석유, 액화천연가스, 석탄, 수산물을 수출하고 중국과의 <베니우진> 합작회사도 있다.

코제야코 주지사는 중국은 사할린의 관광 분야와 일련의 전망적인 자원과 경제의 다양성을 위해 중요하게 쓸 만한 투자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중국과의 공고한 협력 기반을 제안했다. 웨니빈 총영사는 향후 상호교역 분야 확대와 관광산업의 공동사업의 의미를 두고 해산물, 임산업 가공 폐기물 활용에 협력하기로 했다. 웨니빈 야니 총영사는 사할린과 중국의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와 더욱 긴밀한 경제 및 인도적 교류를 제안한 가운데 회담 결과 협력 방향의 확대 목록에 따라 지속적으로 대화하기로 했다.

### 사할린, 올해 추가로 구급차 18대 보급

며칠 전 올레그 코제야코 주지사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응급진료소 의료진과 운전자들과 만났다. 현재 응급소는 하루에 180-250 건의 응급신청을 받고 있는데 응급진료소 건물은 많이 낡고 차고도 없는 실정이 밝혀져 현재 새 응급진료소 건물 설계안을 작성하는 중에 있다. 만남에서 응급진료소 직원들은 현실적으로 절박한 문제들을 얘기했다.

만남 끝에 주지사는 사할린주는 올해 추가로 구급차 18대를 보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0대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응급진료소, 6대는 구역들에, 2대는 공항응급진료소에 보급된다.

### 트루트네브 부총리, 사할린 방문

지난 26일(수) 사할린을 방문한 러시아대통령 극동지역전권대표 유리 트루트네브 러시아 정부 부총리는 주정부에서 선도개발지역 조지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전권대표에 따르면 현재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프리 포트)으로는 사할린에서 9개 회사가 있지만 아직도 수가 적은 상태로 트루트네브 부총리는 사전 설정된 것들의 시행 과정이 잘 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러시아정부에 <남 쿠릴> 새 선도개발지역 승인을 받기 위한 서류가 제출되었는데 이에 투자하는 회사는 하나만 등록되었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를 확인한 후 이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르니 워스두> 선도개발지역 프로젝트 실시가 많이 늦어지고 있다며 국가가 발전하고 사할린도 발전해야 한다고 트루트네브 전권 대표는 강조했다. 그리고 <고르니 워스두>는 세계적인 수준의 리조트가 되어야 한다고 그는 거듭 주장했다.

또 회의에서는 극동 토지배분문제가 논의된 가운데 주민들이 가장 많이 토지를 받는 두 곳에 새로운 마을이 형성될 전망이다. 현재 지방자치체에서는 제안시설구축 조성에 대한 방안을 찾고 있다.

(본사기자)

### 새종연구소 소장, 사할린방문

### 문재인 대통령, 블라디에서 동포들과 간담회 부탁

지난 22일(금) 한국 새종연구소 진장수 소장, 이상현 연구기획본부장, 최은미 객원 연구위원이 사할린을 다녀가며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주한인회 박순옥 회장, 주노인회 김홍지 회장, 우리말 방송국 김춘자 국장과 새고려신문사 배 워 토리아 사장과 만나 연구소를 소개하고 사

고 국제사회와의 폭넓고 유기적인 정책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미·중·일 등을 중심으로 해외 사업과 심층조사를 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러시아에도 중점을 돌리기 시작했다.

사할린을 방문하기 전에 연구소 대표단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한러포럼에 참석했다. 이 포럼은 연구소와 극동 연방대학교와 공동으로 개최했는데 한러네트워크 구축 및 동북아다자협력 증진방안과 한국 신정부 등장 이후 한·러 관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추진되었다고 전해졌다.



할린한인문제를 파악했다.

새종연구소는 안보·통일·외교 정책 분야의 중·장기적인 국가전략과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민간 공익연구소로 한국에서 매우 영향력있는 기관이다.

실제로 이 연구소를 통해 통일부장관이 3명 배출되었고, 현재 소장도 차관급 인사라고 알려졌다.

진 소장은 연구소가 개소된지 30년 이상이 되었고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고, 한국의 정책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국내외의 공공외교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그리

등을 소개했다. 김홍지 회장은 한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사할린특별법안들 등에 대해 설명했다. 사할린한인 사회계 대표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할린한인역사기념관 건립 문제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했다.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올 9월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 방문 시 동포 간담회를 가졌으면 하는 제안이 들어왔다.

동포사회계 대표들은 연구소 측에서 러시아, 특히 사할린한인문제에도 관심을 돌려주길 바라는 바람을 표명했다.

(본사기자)

# 김해시 지방자치의원단, 사할린한인 사회계 관계자와의 공식 만남 무산

26일(수) 오후 5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김해시 의원단(단장 배병돌 의장, 총 6명)을 기다렸다. 이를 위해 박순옥 주한인회 회장, 김홍지 노인회 회장은 물론, 네 웰스크, 홈스크, 돌린스크, 빅코브, 코르사코브,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장과 대표들, 주두마 정 알레리 의원,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두마 최 유리 의원 등이 문화센터에 모였다. 필자는 이미 한 달 전에 김해시 의원단이 사할린한인 관계자들과 만나길 원한다는 연락을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는 박해룡 전 주한인협회장을 통해 받았다.

그는 박순옥 현 주한인회 회장과 만남의 자리를 만들고 이에 사할린 방문을 담당하는 한국 여행사 관계자에 알려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박해룡 씨가 여행사 측에서 받은 일정 프로그램에는 26일 우리말방송국 방문, 문화센터(주한인회)에서 동포와의 간담회, 27일에는 새고려신문사 방문 일정이 기재돼 있었다.

26일 13시 반에 의원단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사할린에 도착한 후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비행기기에 예상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가운데 박순옥 회장과 박해룡 씨가 여행사 직원보다 먼저 마중해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스케줄을 확인하는 중에 방송국 방문 대신에 코르사코브 방향의 언덕 참배를 먼저 하기로 변경했다. 한인회 관계자들도 동의하여 17시에 한인문화센터에서 만나기로 재확인했다. 이에 김해 의원단도 순서 변경에 동의했다.

17시 정각 20-30분 지나도 대표단이 나타나지 않자 17시 30분 경 박해룡 씨에게 여행사 관계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코르사코브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로 방금 들어오는 길이어서 늦을지도 모르니 모두 식당으로

이동해 달라는 연락이었다. 이에 박해룡 씨는 문화센터에 거의 30명이 모여 기다리고 있으니 늦더라도 이쪽으로 와달라고 전하며 의장과 통화를 요청했으나 통화가 끊겼다.

이후 여행사 관계자가 박순옥 회장에게 연락을 하여 식당으로 이동하라는 같은 말을 전했다. 이에 박 회장은 "동포들과 만나보고 싶고 우리 역사, 현황을 알고 싶으면 당연히 한인문화센터에 와야 한다"고 잘라 말하고 김해 대표단 단장과 통화를 원했으나 통화가 이뤄지지 않자 몇 번의 통화를 시도했어도 이뤄지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순옥 회장에게 현덕수 사할린한국한인회 회장으로부터 연락이 와 일단 식당으로 와 달라는 말을 전했다. 이에 박 회장은 거절했다. 알고본즉 여행사 관계자는 현덕수 사장의 직원이었다. 현 회장은 한분을 통해 내일 27일 18시에 주한인회와 지방한인회장들과 만나자는 개별적인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이날 한인문화센터에 모인 모든 사할린한인 관계자들은 불쾌한 기분을 표출하며 "박 회장님 부탁으로 오늘 일부터 직장에서 일찍 퇴근했고 왔는데...", "2-3시간 거리를 차로 달려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다."라는 등 불만이 불거져 반발하게 되었다.

간담회 장소를 찾아온 사할린한인 사회계 관계자들은 "한국의 의원들이 사할린한인역사 탐방을 하고 동포한인회와 교류를 하는 목적으로 사할린에 왔다면 이런 자세로 나오면 곤란하다."라고 했다. 이에 우리는 이미 설정된 우리의 프로그램이 무시되었다는 의견을 모아 의견서를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출장소, 새고려신문사, 한국공식기관 등등 보내기로 합의했다.

동포신문 사장으로 간담회 자리에 초대받은 필자는 여행사 관계자, 현덕

수 회장과 전화 통화 내용을 분명하게 들은 바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한 일을 그대로 전하게 되었다.

박순옥 주한인회 회장은 "20년 이상 한인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건은 처음이다. 분명히 문화센터에서 만나는 내용은 여행사에 전달돼 있었고, 박해룡 회장이 갖고 있는, 여행사에서 보내온 프로그램 일정에도 있었다. 게다가 의원들을 공항에서 마중할 때 17시에 문화센터에서 뵙자는 약속도 몇 번 하였다. 우리를 무시한 것이나 다름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표명했다. 박 회장은 "김해시에 우리 영주귀국자들이 100여 명이 계시는데 물론, 김해시 의원들이 우리랑 만나자고 할 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현덕수 회장이 지휘한 만찬의 자리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노인정 할머니 몇 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 회장 등이 미리 초대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는 혼자 '고의로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나?'란 의문마저 든다. 선 일정이 무시된 채 진행된 상황이 몹시 유감스러울 뿐이다.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상태로 사할린에서 지낸 현덕수 씨가 한국한인회 회장으로서는 권리가 있는지란 의문도 생긴다. 더군다나 이 한인회 회원 대다수가 그의 회사 직원이고 사업자 등으로 사할린에 있는 한국 교민들은 회장과 좋지 않은 관계로 이 단체 활동에 참가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

27일 오후에 김해시 대표단은 주한인회를 찾아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여행사 관계자들은 마지막까지 어르신들에게 고성과 변명으로 대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쓸쓸한 이 느낌을 어찌 표현할 길이 없다.

(배 워토리야)

# 동북아청소년협의회, 사할린 동포 후손 지속 지원



한국 구미 동북아청소년협의회 만큼 지속적으로 사할린 동포청소년들을 위해 10년 이상 꾸준히 노력하는 단체는 찾기가 어렵다. 이번에 이 단체는 사할린에서 한국 전통문화 계승 캠프를 열었다. 이를 위해 동북아협의회 김연고 이사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사할린을 찾았다.

본사 배순신 기자는 김연고 이사장에게 동북아청소년협의회 소개, 방문 소감, 앞으로의 계획 등을 부탁했다.

"우리 단체는 해마다 국내 청소년들에게 해외 문화탐방을 시키고, 1997년부터 2012년까지 거의 매년 러시아 사할린과 하바롭스크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후손들을 초청해 15일 동안 모국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는 사할린 학생들을 위한 모국연수사업을 격년제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모국연수가 없는 해는 사할린 현지를 찾아가 K-POP 공연대회, 청소년캠프 등,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벌이고 있죠. 사할린과 인연을 맺은 지 거의 15년이 되었는데 사할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사할린한인 강제징용자 후손들의 모국 연수는 지속적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저는 사할린이 이미 3번째입니다. 함께 오신 거의 모든 이사님들도 여러 번 사할린을 다녀오셨습니다. 내년에도 사할린 강제징용자 후손들은 당연히 모국에서 연수를 받게 될 겁니다. 지난 번에는 캠프를 아니와에서 했었고 이번에는 코르사코브 지역에서 하는데 규모가 점점 커집니다. 우리도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사할린에서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더욱더 좋았습니다. 오늘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을 보면서 자랑스러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볼 땐 지금 하는 캠프는 아직 규모가 작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경상북도 의회에서 예산을 대폭 확보하면 사할린 전체에 알리는 행사로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다시 사할린에서 만납시다!"

# 이 모 저 모

## 80 명의 학생들 <자연학교>대회에 참가

제3기 <자연학교> 대회가 마무리되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홈스크, 마카로브, 포로나이스크를 비롯해 사할린 각지에서 모인 80명 이상의 학생들은 작은 와와이스코에 호숫가에서 오래 기억할 만한 배낭여행 체험을 하게 되었다.

사할린주의 역사와 자연에 대한 강연은 학생들에게 적잖이 중요했다. <부메랑>클럽의 회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해양 포유류, 사할린 연송어와 조류, 도서 지역 지리학과 사용 가능한 대체에너지원에 대한 상호작용 수업을 진행했다. 특히 가라후토 시기 사할린에서 강제노동과 최초 개척자들이 어떻게 태평양의 먼 섬들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수업이 학생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이번 행사에서 <부메랑>클럽과 공동으로 <로스벨치-사할린포르네프치가스>회사와 <엑손 벨체가스 리미티드>회사가 조직위원으로서 2017년 러시아에서 기념하는 생태환경의 해를 맞아 모든 참가자들에게 축하했다. 전 수업과정은 자연보호에 대한 각 사할린주민들의 끊임없는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개념으로 일관되었다.

전 수업 절반이 물가에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여 조직위원들은 안전에 역점을 둔 가운데 대회 프로그램에는 전통적으로 몇몇 중목의 해상 수업, 스포츠여행과 암벽(또는 바위 타는)타기 수업이 이뤄졌다.

학생들은 거침없이 익사자 구조기술 훈련을 마무리하게 되었고 수업은 구조자의 개인 안전에 특별히 주목하는 구조원들이 진행했다.

자연에서의 안전 자세와 여행과 지리연구로 학생

들과 청년들이 함께한 활동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부메랑>클럽은 학기 동안 수업에 참가할 학생들을 초대한다. 등록은 전화 28-79-70로 문의해줄 것을 클럽 홍보실이 전했다.

**Более 80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слете "Школа природы"**

Третий сезон слёта "Школа природы" подошёл к концу — более 80 ребят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Холмска, Макарова, Поронайска и других уголков Сахалина получили незабываемый туристский опыт на берегу Малого Вавайского озера.

Не менее важными для детей стали открытия об истории и природ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члены и волонтеры клуба "Бумеранг" провели интерактивные занятия о морских млекопитающих, сахалинских лососях и птицах, географии островного края, а также о доступных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источниках энергии. Интерес детей вызвали занятия о каторге на Сахалине, периоде Карафуто и о том, как первооткрыватели добывали знания о далёких островах в Тихом океане.

Организаторы слёта — клуб "Бумеранг" совместно с ООО "РН-Сахалинморнефтегаз" и компанией "Эксон Нефтегаз Лимитед" — поздравили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с Годом экологии, который отмечается в России в 2017 году. На всех занятиях красной нитью проходила мысль о ежедневной роли каждого сахалинца в сохранении природы.

В программе слёта традиционно было несколько видов активности на воде, занятия по спортивному туризму и скалолазанию. Учитывая, что половина всех занятий проходила на воде,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был сделан акцент на безопасность.

Ребята с большим удовольствием отрабатывали технику оказания помощи утопающему.

Занятия проводили спасатели, которые уделили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лич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спасающего.

Работа с детьми и молодежью по туризму, краеведению и безопасному поведению в природе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а. Клуб "Бумеранг" приглашает детей на занятия

в течение учебного года. Для записи нужно обращаться по телефону: 28-79-70,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клуба.

**포로나이스크 구역, 2 주간 출몰하여 주민들을 놀라게 한 곰 사살**

7월 22일 저녁에 포로나이스크 산림청 산림감독관들은 포로나이스크 <즈웨로슈호즈(동물농장)> 단지 주민들에게 2주간 출몰하여 놀라게 한 곰을 포획했다. 곰은 여러 번 사람들 앞에 출몰하곤 했는데 목격자 중 한사람이 단지 내 창고 지붕에 올라 출몰한 곰을 촬영할 수 있었다. 며칠 전에 곰은 현지 주민의 양계장에 기어올라가 수십 마리의 닭을 잡아먹은 이후로 곰이 밤에 다시 상점 근처로 출몰하자, 마지막 <출몰> 이후 3일 만에 곰을 포획할 수 있었다.

**В Поронайском районе застрелили медведя, две недели терроризировавшего сахалинцев**

22 июля вечером инспекторы поронайского лесничества застрелили медведя, около двух недель пугавшего жителей микрорайона "Зверосовхоз" в Поронайске.

Животное несколько раз выходило к людям. Одному из очевидцев удалось сфотографировать медведя с крыши гаража на окраине микрорайона. После этого дикое животное видели ночью у магазина, а днями ранее косолапый залез в курятник местной жительницы и съел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птиц.

Спустя три дня после последнего "визита" медведя удалось застрелить.

**주력 임대 여 사기꾼, 사할린주민 11명 속여**

유즈노사할린스크 경찰 수사국 형사들이 사건 수사 실행과정에서 연쇄 사기행각을 벌인 용의자의 신분을 확인했다. 오늘 현재 경찰에는 40대의 유즈노사할린스크 여성이 타인의 재산갈취 형식으로 11건의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8면에 계속)

### 한국의 전통 및 현대 문화를 즐기며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사할린의 명승지인 투나이차 호숫가에 위치한 투나이차 휴양소에서 <한국 전통 문화 계승 사할린 청소년 캠프>가 진행되었다.

오점순·김길수 코르사코브 한국어교사들의 지도로 코르사코브 제2, 제 4 중학교 학생 32명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4일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국 전통문화와 현대 문화, 한국어 등 관련 행사들이 펼쳐진 가운데 특히 한인 1세대들을 초대하여 실시된 비빔밥 만들기 행사는 큰 관심을 모았다.

24일(월) 아침캠프에 도착했더니 학생들은 비빔밥 재료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이미 휴양소에 도착한 코르사코브 1세대 할머니들은 밖에서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코르사코브 시한인회 관계자들은 상차리기를 도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최자인 구미 동북아청소년협의회 김연

고 이사장을 비롯 총 11명의 인사들이 캠프 현장을 찾았다.

이날 캠프장에서 코르사코브한인회 소속 타악기팀이 신나는 퓨전 북공연을 선보이고 여학생들은 K-팝 춤을 추었다.

이번 캠프의 개최에 협력을 한 사할린한국교육원 김주환 원장은 "이번 교육 현장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조상들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는 효과가 있을 거라 본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은 이번 4일간 정말 유익하고 즐거운 날이었다며 주최 측에 감사의사를 표했다.

(배순신기자)

### 유즈노사할린스크한인들 우글레고르스크 주민들에게 공연 선사

지난주 토요일, 7월 22일 13시 30분 우글레고르스크시 <옥차브리>문화회관 강당은 사흐쵸르스크와 우글레고르스크 시민들로 초만원이 이루어졌다.

우글레고르스크시 한인회 창립 25주년 맞이하여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와 유즈노사할린

씨의 부채춤은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1997년 서울에서 있었던 국제노래콩쿨수상자인 김경호가수와 윤민자씨의 노래에 맞추어 관객들은 함께 춤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공연은 아마추어 가수들과 무용가들, 관객들 모두가 기쁨과 새 에너지를 듬뿍 받는



스크 지역 <소망> 어린이창작협력회 그리고 주여성회 회원들이 이날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하여 준비한 특별콘서트 공연을 진행했다.

먼저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림중환 회장과 우글레고르스크시한인회 강복숙 회장, 최정순 전 주한인여성회 회장의 축사가 있는 후 콘서트는 1세와 2세 할머니들로 구성된 <무궁화> 합창단의 <벚노래>와 <수리>란 노래로 시작되었다. 이어지는 프로그램마다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와 <브라워>소리가 울렸다. 특히 강상옥, 박위석 부부가 부른 <내 나이가 어때서>와 <당신뿐이야>는 사할린한인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진 노래로 사람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아리랑> 무용팀의 아리랑 춤과 그 팀을 지휘하는 박영자

기회가 되었다.

행사는 우글레고르스크시 레스토랑에서 계속 이어져 거기에서도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으면서 같이 뛰며 춤도 추고 또 축하도 했다.

이날 행사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최정순 사할린주한인여성회 명예회장, 우글레고르스크시한인회의 주최로 조성되었다.

우글레고르스크로 우리들의 여행은 아침 6시부터 시작하여 저녁 9시까지 계속 되었지만 누구도 피곤을 느끼지 않았고 모두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모두가 피부로 느꼈다.

(글/김춘경, 사진/안영수)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후손 "아버지 유골이라도 모셨으면..."

유가족 정용병·김수용 씨 증언...일본 배상·친일잔재 청산 촉구  
"일제 강제 징용 노동자에게 사과하고, 배상하라."

한국노총 경남본부,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주최한 '(가칭)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경남 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노동자상 건립을 위한 시민의 뜻을 모으고자 대중행사를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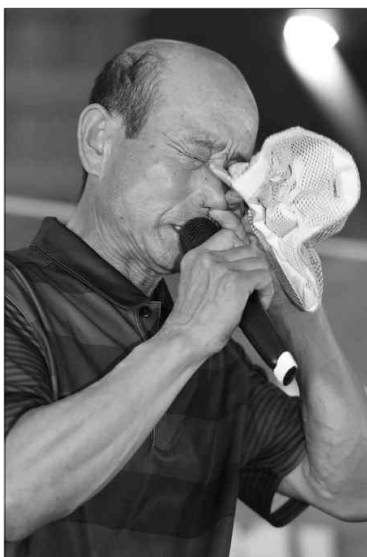
지난 21일 저녁 7시 무더위 속에 창원 정우상가 앞에 200여 명이 모였다. '일제 강제 징용 노동자상 건립, 친일 잔재 청산, 한반도 자주와 평화통일을 위한 경남대회'에 참석한 이

들은 이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이 참석해 생생한 증언을 했다. 남해에 사는 정용병(67) 씨는 "너무 억울하다. 전국민에게 우리가 겪은 일을 알리고 싶었다"며 운을 뗐다.

정 씨는 "저는 유복자다. 부친 얼굴도 모른다. 어느 날 새벽에 잡혀간 아버지가 2년 후에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왔다고 한다. 돌아와서 얼마 안 돼 돌아가셨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거창에 사는 김수용(73) 씨는 이야기를 하며 목이 뻐다.

김 씨는 "아버지는 1944년 해방을 앞두고 사할린으로 끌려갔다. 곧 돌아오신다며 장작



▲ 일제 강제 징용 노동자상 건립과 친일잔재 청산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 경남대회가 지난 21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한국노총 앞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일제 강제 징용 유가족 김수용 씨가 증언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을 가지런히 재어두고 간 아버지가 70년이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울먹였다.

그는 "30대 가장이 정용에 끌려가고 한 가정이 몰살됐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할린에 가봤다. 해방 후 부두에서 정용

자들이 돌아갈 배를 기다렸지만, 배가 오지 않아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다고 한다"며 가슴 아픈 과거를 말했다. 이어 "정부가 유골이나마 찾아서 유가족 품에 안겨줬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김영만 6·15공동선언실천 경남본부 상임 대표는 대회사에서 "우리 사회에 '친일 적폐'가 남아 있어서 아직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이 안 됐다. 군수 공장 등에서 매 맞아 죽고, 굶어 죽은 피해자에게 대통령이 위로 편지 한 통이라도 보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사과, 배상도 촉구했다.

이정식 한국노총 경남본부 창원시지부 의장, 신중관 경남노동자 통일선봉대 대장은 역사를 기억하고자 일제 강제 징용노동자상 건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창원시립예술단 노래 공연, 뮤지컬 <통개비> 공연, 한피줄기 합창에 이어 상남분수광장까지 행진을 하며 마무리됐다.

추진위는 25일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추진 기자회견, 26·27·28일 <군함도> 공동체 영화 상영회를 연다.

(경남도민일보)

### 사.할.린.

얼어붙은 섬에 뿌리내린  
한인의 역사와 삶의 기록

저자 최상구

(전호의 계속)

다만 한국의 국적법에 따라 원고인 김명자 씨는 아버지의 국적이 한국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신분등기소에서 발행한 사망증명서에 김명자 씨 부모 모두 '한국' 출생으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증거로 제출했다. 또한 김명자 씨 출생증명서에 부모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사할린주 내무부에서 발행한 김명자 씨 신분증명서에도 '러시아에서 출생한 무국적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증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원고 측 변호인이 제출한 이들 증거를 모두 채택했고, 나아가 사할린 한인들이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의해 강제 동원되지 않았더라면 1948년 7월 17일 제정헌법 공포와 동시에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을 것이기에, 김명자씨는 태어난 그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인 판결문은 아래와 같다.

"원고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제2조, 제5조에 따라 조선인이었다가 1948.7.17. 제정된 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1948.12.20. 법률 제16호로 제정된 국적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6159 국적확인소 판결문)

나는 한국사람이요, 까레얀카!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4년 1월, KIN에서 제작한 달력을 전달하러 사할린에 간 나는 잠시 시간을 내어 김명자 씨를 만났다. 그때 왜 이토록 귀찮고 힘든 소송을 하게 되었는지 내가 그 이유를 묻자, 김씨는 이렇게 대답했다.

"2012년에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에 마음이 끌려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이왕 시작했으니 끝까지 갈 생각이 다. 원래는 오빠도 같이 참여하려 했는데 출생증명서 제출하는데 시간이 걸려 나만 하게 된 거다." (계속)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олонка историка

## ИСТОРИЯ КОРЕИ



Поначалу Корее удавалось оставаться в стороне от схватки двух соседей, каждый из которых обладал намного большей военной армией, чем маленькая Корея. В 1608 г. ван Сонджо умирает и на престол всходит его сын, энергичный Кванхэ-гун. «Гун» – это титул эквивалентный «князю», «принцу», то есть Кванхэ-гун официально лишен храмового (тронного) имени. Дело в том, что Кванхэ-гуна свергли с помощью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ереворота и официальные историографы сделали все, чтобы очернить его в хрониках и летописях.

Однако на деле Кванхэ-гун был одним из самых талантливых руководителей государства, достигшим успеха и в восстановлении экономики, и в введении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Условия, в которых приходилось действовать Кванхэ-гуну, были сложными.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Корея оставалась союзником династии Мин, и китайцы постоянно требовали участия Кореи в кровопролитной борьбе с маньчжурами. Минские императоры ожидали от корейского вана во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Корея граничила именно с Маньчжурией, и в связи с этим была крайне уязвима для рейдов кочевой конницы. Вдобавок Кванхэ-гун, будучи реалистичным политиком, хорошо понимал, что империя Мин находится в глубоком кризисе, что в Восточной Азии складывается новое соотношение сил, которое необходимо учитывать при выстраивании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Поэтому Кванхэ-гун с немалым мастерством проводил политику лавирования между двумя грозными соседями – Китаем и Маньчжурией.

В начале 1619 г. Корея была вынуждена все-таки уступить давлению династии Мин и послать в Маньчжурию 13-тысячный отряд для действий против маньчжур в составе минской армии. Однако одновременно с этим, Кванхэ-гун послал тайное сообщение Нурха-ци о том, что участие корейских войск в войне является вынужденным, что Корея хочет сохранить дружественные отношения с династией Мин и избежать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го участия в военном конфликте. Командир корейских войск получил тайный приказ воевать не особо активно, а при малейшем намеке на то, что маньчжуры берут вверх – сразу сдаваться в плен. Минская армия была разбита, а корейский корпус действительно быстро сдался в плен.

Однако в 1623 г. ситуация изменилась. В Сеуле произошел дворцовый переворот. Кванхэ-гун был свергнут с престола группой недовольных сановников и офицеров. Кванхэ-гуна вместе с семьей сослали в ссылку, где он и умер много лет спустя (как вы могли уже заметить, члены клана Ли были менее склонны к физической расправе друг с другом, и многие свергнутые ваны спокойно доживали свой век в ссылке в провинции). Заговорщики занимали резкую антиманьчжурскую политику и намеревались оказывать Минам самую решительную поддержку. Именно политика Кванхэ-гуна, трусливая по мнению царедворцев, его нерешительность в борьбе с «варварами» не соответствовали нормам конфуцианской морали.

Престол занял друго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дома Ли – ван Инджо (правил с 1623 по 1649 гг.). Он придерживался антиманьчжурских взглядов и это было известно в Лояне, столице маньчжуров. Династия Цзинь не могла игнорировать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Кореи (несмотря на ее небольшой военный потенциал). Никакая военная кампания против Минов не могла начаться, потому что в этом случае незащищенный тыл Маньчжурии мог подвергнуться нападению корейцев. Поэтому для Цзинь важнейшим условием дальнейшего продолжения борьбы против Минов стало подавление возможной опасности со стороны Кореи.

Новый маньчжурский правитель Абахай (сменивший Нурха-ци в 1625 г.) принял решение о вторжении в Корею. Боевые действия начались зимой 1627 г. 30-тысячная маньчжурская конница переправилась через Амноккан, захватила пограничный город Ыйджу, ускоренным маршем двинулась на Сеул. Во главе отряда находился сын Абахая. Против маньчжуров выступили главные силы корейской армии, а ван с семьей срочно выехали на остров Канхвадо, который обычно служил убежищем корейскому правительству при чрезвычайных обстоятельствах.

Однако маньчжуры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рассматривали свой поход как демонстрационный, средством оказать давление на Инджо. В первые же дни вторжения они предложили переговоры. Когда стало ясно, что дальше вести сопротивление бессмысленно в силу явного военного преимущества маньчжур, Инджо принял предложение и маньчжуры прекратили свое движение к столице. Заключенное весной 1627 г. соглашени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ло выплату Кореей значительной военной контрибуции, но важнее было то, что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соглашением Корея признавала себя вассалом Маньчжурии и обязывалась не принимать участие в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против нее.

Для многи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й правящей элиты события эти стали настоящим ударом. Поколебленными оказались самые основы их конфуцианского мировоззрения. Корея – конфуцианская страна – признала свою зависимость от диких восточных «варваров» и отвернулась от законной китайской династии. Многим пережить это было довольно сложно.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Юлия Дин,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ГИАСО

## Корейские песни и танцы - в подарок

В 1990 году была основана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но официальн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была в 1992 г.

И наше Углегорское отделение РООСК решило отметить 25 лет сво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здравить нас приехали вокалисты и танцевальная группа «Ариран», бывшая сахалинка, а ныне уехавшая на ПМЖ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певица Юн Мин Дя, «золотой голос» Сахалина Ким Ген Хо (Сергей).

Многие из них впервые посетили наш район, их не остановила даже отдаленность нашего округа от центра.

Особенно мы рады были вокальной группой «Мугунхва», которой много лет руководит Ким Чун Ген (Тамара Васильевна). Несмотря на преклонный возраст, преодолев 6-ти часовой путь на автобусе, они очень достойно держались и выступили на ура! Зрители наградили их бурными аплодисментами.

А как задушевно и трогательно были исполнены корейские песни супругами Кан.

Танцевальная группа «Ариран» при ККЦ, в красивых национальных костюмах-ханбок, буквально парили на сцене. Зрители были заворожены!

Певица Юн Мин Дя была прекрасна в белом костюме «снежной королевы». Ее очаровательный голос, легкое парение на сцене, неподдельные эмоции и чувства очень тронули публику.

И вот на сцене появился Ким Ген Хо. Его приятный тембр очаровал зал, который тут же при-



нялся подтанцовывать замечательному певцу.

Заключительную песню «Возвращайся в порт Пусан» спели хором стоя. И чувствовалась такая связь, теплота, понимание, контакт с залом. Люди были переполнены эмоциями, у многих были слезы на глазах...

Концерт прошел на одном дыхании.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концерт состоялся в РДК «Октябрь» 22 июля, зал был переполнен жителями Углегорска и Шахтерска, было немало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1-го поколения, и конечно же, активистов Углегор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РООСК.

Концерт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Углегорским отделением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ОО корейцев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этом проекте внесла Цой Ден Сун (Зоя Михайловна). Ей отдельное спасибо от земляков.

Гости были награждены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ми письмами от наше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одарками, сувенирами, цветами.

Особая благодарность и.о. главы Углегор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Дорожку С.В. и отделу по культуре, спорту, делам молодежи и связям с общественностью. Без их помощи эта встреча не состоялась бы.

Хотелось бы выразить благодарность всем тем, кто помог в реализации этого проекта.

Председатель Углегор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РООСК  
Любовь Кан

## Культуру Кореи на природе изучали школьники Корсакова

С 23 по 26 июля на базе отдыха «Тунайча» более тридцати школьников Корсакова, изучающих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ультуру, смогли отдохнуть, весело и с пользой провести время в лагере по изучению культуры Кореи.

Этот лагерь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Молодеж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из г. Кум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и поддержке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и Корсаков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В течение четырех дней ребята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педагогов Ким Кил Су и О Дем Сун провели множество разнообраз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приготовление блюда «биммпаб»,

встреча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1-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онцерт К-поп, игры и конкурсы. Ребята также узнали много нового о культуре Кореи.

Интересное и веселое времяпрепровождение на фоне

прекрасной природы – самый лучший отдых, считают ребята.

Южнокорейская молодеж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почти 15 лет приглашает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3-4-го поколения на 15-ти дневную программу в Корею, где они помимо изучения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Страны утренней све-

жести, путешествуют по памятным местам. С 2013 года молодеж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тала через год чередовать программы посещения РК и мероприятий на Сахалине. В их копилке - организация на Сахалине первого К-

поп фестиваля, лагеря в Аниве, а в этот раз –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Организаторы сообщили, что и впредь будут претворять в жизнь «сахалинские проекты».



Виктория Бя.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Кабинет министров одобрил закон о структур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25 июля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провел заседание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на котором были одобрены поправки в закон о структур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заявил, что на фоне реструктуризац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утверждени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бюджета можно говорить о начале полномасштабной работы. Он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отныне власти будут 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успешные показатели. Мун Чжэ Ин призвал член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приступить к реализации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бюджета, чтобы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его реальный положительный эффект для создания рабочих мест и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молодежи. Он также добавил, что пункты, не вошедшие в нынешний проект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бюджета, должны быть учтены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Утвержденный закон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структуру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котором 18 министерств, 5 управлений министерского уровня и 17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учреждений более низкого ранга. Прежняя структура включала 17 министерств, 5 управлений министерского уровня и 16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учреждений.

## Посол по особым поручениям МИД России посетил Пхеньян

Посол по особым поручениям МИД России Олег Бурмистров в ходе визита в СК в период с 22 по 25 июля обсудил ситуацию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российские СМИ со ссылкой на информацию посольства СК в Москве. Как отмечается в сообщени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осветила принципиальную позицию, что, пока не пресечены в корне враждебная политика против КНДР и ядерная угроза со стороны США», Пхеньян «не отступит ни на шаг от избранного пути укрепления ядерны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В сообщении отмечается, что Олег Бурмистров встретился с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МИД.

## Китайский экспорт в СК вырос

КНР с прошлого года участвует в реализации анти-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санкций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Однако в первом полугодии объем китайского экспорта в СК вырос на 18%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По данным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26 июля,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ил 1 млрд 656 млн долларов. Данный объем, сохраняет довольно высокий рост с января этого года. Исключением является только февраль. Увеличение касается и экспорта авиационного топлива, поставки которого в КНДР были запрещены санкциями от апрел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Между тем, импорт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продукции в Китай в первом полугодии сократился на 24,3%, составив 844 млн долларов. Нынешнее снижение связано с запретом на импорт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угля.

## Полиция расследует дел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беженки Чон Хе Сон

Южнокорейская полиция приступила к расследованию дел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беженки Чон Хе Сон, которая ранее перебралась в РК, но через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вновь оказалась на Севере. Она, в частности, была показан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и СМИ в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ом видео, обличавшем жизнь на Юге. Полиция обратилась в Генеральное консульство РК в китайском Шэньяне с просьбой оказать содействие в выяснении подробностей пребывания Чон Хе Сон в Китае, куда она направилась в апреле. 19 июля полиция обыскала дом беженки в РК. Ведётся работа с её окружением. Кроме того, проводится выяснение положения 900 беженцев из КНДР, чьё нынешне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неизвестно. Полиция получила информацию о том, что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Пхеньян усилил работу по возвращению беженцев, перебравшихся на Юг. После прихода к власти Ким Чон Ына на родину вернулись 25 северокорейцев, ранее бежавших на Юг, сообщают пхеньянские СМИ.

## В РК создаётся крупнейшая в Азии площадка для показа VR-фильмов

Осенью в РК пройдёт крупнейшее в Азии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вящённое фильмам, которые созданы с применением технологий виртуальной реальности VR. Оно состоится в рамках XXII Пусан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инофестиваля, который откроется 12 октября.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фестиваля. Мероприятие называется VR CINEMA in BIFF. В этом году многие крупнейшие кинофестивали мира уделили внимание VR-фильмам. В РК также растёт интерес к этой теме. Для развити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технологий в стране прилагается немало усилий, но пока их недостаточно. Организаторы Пусан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инофестиваля решили уделить внимание этой сфере, учитывая её потенциал. На этот раз будет показано 30 VR-фильмов. (RKI)

##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и

# Объединение Юга и Севера должно начинаться с устранения угрозы войны и активизации контакта населения

Как известно,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был разделен в результате Холодной войны. В 80-х годах прошлого столетия со спадом напряженности между СССР и США стал подниматься вопрос о состоян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Но в отличие от стран Восточной Европы между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Статус кво до сих пор не восстановлен.

На стыке XX и XXI веков геополитическая обстановка стремительно менялась. Распад СССР привел к однополярному миру. Однако со временем все большую мощь набирал Китай. Благодаря успешным экономическим реформам, Поднебесная добилась стремительного роста. В итоге Китай стал сильной мировой державой и одним из крупнейших политических игроков, оказывающих влияние на обстановку во всем регионе, в том числе 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 свою очередь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использовала сложившиеся в одно время напряженны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СССР и Китаем в своих целях, благодаря чему смогла значительно улучшить свое положение.

Между тем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не пошла по пути Восточной Европы и отказалась от реформ. Вместо политики открытости, страна поддерживает существующую систему путем разработки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Но как показывает пример Китая, который также является страной с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м режимом, без проведения активн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реформ, гласности развитие в современном мире невозможно.

Сегодня необходимо устранить угрозу войны между Югом и Севером, только тогда люди смогут жить в безопасности. Естественно, что сразу ликвидировать противоречия, которые продолжались между сторонами более полувека, не удастся. Но необходимо перманентными шагами к этому двигаться. Для этого необходимо ядерное разоружение, сокращение военных расходов у обеих сторон, другие процессы.

В конечном счете только объединение сможет обеспечить стабильный мир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 разделенном состоянии напряжение между сторонами все равно будет сохраняться.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существует концепция о федерации, когда две страны объединятся формально, но каждая будет существовать при своем режиме. Это половинчатые меры, которые не дадут результатов.

Прежде всего необходимо делать реальные шаги, которые бы обеспечивали сближение. Сегодня из-за проводимых ядерных испытаний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находится 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изоляции. Усиливается давление на страну со стороны мирового сообщества. В апреле месяце на переговорах между США и Китаем Дональд Трамп говорил даже о возможности превентивного удара по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В свою очередь и Китай пытается убедить Пхеньян, чтобы последний отказался от ядерных испытаний, но пока эти попытки являются безуспешными.

Между тем другие государства в регионе используют межкорейский конфликт в своих целях для перераспределения сил. В частности, Япония под предлогом возрастающей угрозы наращивает свою военную мощь.

В то же время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пока не может разработать действенные меры, которые бы позволили обеспечить безопасност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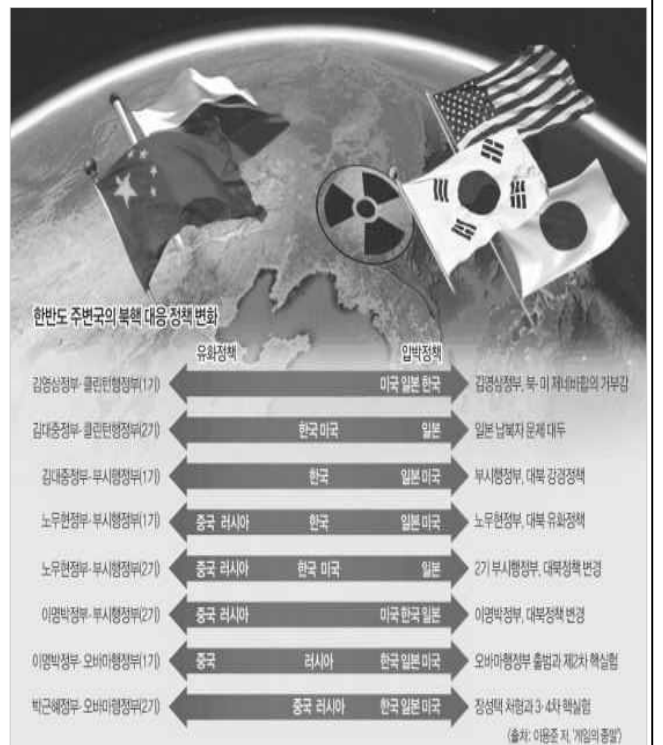
Для разрешения имеющегося кризиса, необходимо сближение на уровне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и внедрения политических механизмов, которые бы смогли решить проблему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объединения Севера и Юга.

В частности, первоочередная задача новоизбранного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ун Чжэ Ина – безопасность. Только безопасность и стабильность могут быть основой для успеш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и обеспечить более широкие возможности в глобальном плане.

На предстоящих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х переговорах должны быть созданы условия доверия, которые буду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разрешению кризисной си-

туации. Также необходимо объединить усилия мирового сообщества.

Для усиления «центробежной силы» в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необходимо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контакты между жителями двух стран, использовать гражданскую дипломатию. Основная часть общества должна сознавать, что нужно стремиться к объединению. Для расширения контактов между Севером и Югом необходимо активнее использовать семимиллионную корейскую диаспору, проживающую за пределами этнической родины.



Нов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должно разработать эффективную программу по мирному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конфликта с Севером, дальнейшего объединения и подключить к данному процессу США и Китай.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должна в обязательном порядке участвовать в обсуждении путей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Помимо применения санкций и жестких мер нужно проводить переговоры, искать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пути решения вопросов.

На состоявшихся в апреле этого года переговорах между США и Китаем по ситуации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стороны пришли к определенной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Так, Китай будет в той мере, в какой это возможно,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ситуацию с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ой. Таким образом, произойдет перераспределение сил и влияние США в регионе несколько снизится, а Китай, наоборот, возрастет.

Между тем, размещение США системы противоракетной обороны тоже отрицательно сказывается на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регионе. Поэтому Вашингтон должен учитывать все стороны данного вопроса. Сегодня среди южнокорейцев растут недовольства в связи с вмешательством США в дела страны.

Нужно подчеркнуть, что ослабление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ого союза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усугублению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США должна использовать свое влияние для конструктивного решения вопроса.

Поэтому новому правительству Мун Чжэ Ина необходимо дать понять руководству США, что Вашингтон должен считаться с интересами 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иначе это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трагедии.

Чон Тхе Ик

Член общества Толстого в России. 2002 г. – посо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оссии. 2001 г. – руководитель службы по вопросам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езидента. 1993 г. – Посо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Египте. 1998 г. – Посо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Италии.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17 год.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ахалина.

на 1 месяц - 79 руб. 3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На Сахалине отметили первый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Сабантуй

Праздник, организованный региональной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ой автономией татар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брал на стадионе «Спартак»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е только жител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но и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гостей из республик Татарстан и Саха (Якутия), а также других субъекто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ервой приняла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Сабантуй. Этот праздник, приуроченный к окончанию весенних полевых работ, символизирует надежду и любовь к родной земле, духовное единство жителей восточной части России все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Открыли программу футбольные матчи национальных команд и красочное шествие делегаций гостей и участников праздника.

В поздравлении официальных лиц прозвучало, чт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регион, в котором в мире и согласии живу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ногих российских народов. Они бережно хранят традиции предков, вместе отмечают национальные торжества, многие из которых становятся частью 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Также со сцены было оглашено приветствие от Президента Татарстана Рустама Минниханова с наилучшими пожеланиями к участникам и гостям праздника на сахалинской земле.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дготовили немало красо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ыступления мастеров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и автономи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диаспор, а также концерт популярных артистов из Республики Татарстан, выставки, ярмарки с блюдами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хни и изделиями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народов, проживающих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вызвали народные игры, а также борцовские состязания,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армрестлингу, пауэрлифтингу.

## Сахалинские власти изучают варианты размещения нового морского вокзала в Корсакове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Подольняк провел рабочее совещание по развитию морского торгового порта Корсаков в сфере пассажирских перевозок.

Необходимо было выработать предложения,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т ускорит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окзала. В совещании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области Вячеслав Власенко, руководитель «Администрации морских портов Сахалина, Курил и Камчатки» Владимир Шутько,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капитана морского порта «Корсаков» Юрий Синев, мэр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Александр Рудаков,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уководства порта. Они рассмотрели несколько вариантов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ового морского вокзала.

При выборе места для него мы должны учесть интересы не только пассажиров, но действующего бизнеса, - отметил Сергей Подольняк. - Только в этом случае возведение нового объекта придас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импульс развитию порта, а также города и района.

##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меньшается количество семей, находящихся в социально опасном положении

Такие данные были озвучены на заседании областной комиссии по делам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и защите их прав. Ее возглави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гиона Антон Зайцев.

На совещании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айонных комиссий по делам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х, контролирующих органов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В ходе мероприятия был рассмотрен вопрос об эффективности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ой работы с семьями, находящимися в социально опасном положении. Кроме того, речь шла об организации временног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ориентации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из неблагополучных семей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региона.

Сахалинские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и привлечены к работам по ремонту 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спортивных объектов, детских игровых площадок, озеленению 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территории городов и сел. Работа, пусть и временная, отвлекает трудных подростков от правонарушений, помогает им в материальном плане.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редко какой школьник тратит свои честно заработанные деньги на бесполезную вещь, чаще всего, устроившись на работу, они стараются скопить деньги на мобильный телефон, модную одежду или цифровую технику, - отметили члены комиссии.

За месяц с учетом неполной занятости подростки смогут заработать порядка 5 тысяч в месяц. Всего в этом году временно будет трудоустроено почти 7 тысяч подростков.

Подводя итоги обсуждения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гиона Антон Зайцев отметил, что в работе региональной комиссии по делам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и защите их прав отмечена положительная динамика. В области уменьшилось количество совершенных несовершенно-

летними преступлений. На 83 стало меньше семей, находящихся в социально опасном положении.

- Однако в некоторых районах профилактика правонарушений среди подростков организована недостаточно хорошо. Остается актуальной проблема раннего выявления семейного неблагополучия. На дальнейших заседаниях комиссии мы вновь уделим данным вопросам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 резюмировал Антон Зайцев.

##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инвалидов закупят современные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ые противопролежневые кровати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оборудование, которое будет приобретено по итогам аукциона, поступит в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в сентябре. 10 новых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ых кроватей через пункты проката технических средств реабилитации «Центр социаль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удут бесплатно предоставлены в пользование людям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 Эта закупка позволит ликвидировать имеющийся в регионе дефицит оборудования такого рода, - сообщила Марина Ташматова,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Сегодня в наших пунктах проката имеется 17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ых кроватей. 16 из них мы выдали получателям социальных услуг. Еще одна кровать находится в Томари, где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будет передана в пользование. Конечно, этого недостаточно, чтобы закрыть все имеющиеся потребности.

Закупка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 один из результатов телепроекта «Разговор с губернатором». В ходе «прямой линии» к главе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обратились родственники 90-летней участницы трудового фронта из Долинска. Они сообщили о возникшей проблеме с предоставлением заслуженной женщине, которая проходит лечение от инсульта, специальной противопролежневой кровати. Вопрос был оперативно решен. Также сотрудники област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занялись организацией аукциона.

Напомним, в 2015 год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чалась работа по созданию системы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во временное пользование гражданам технических средств реабилитации. Вскоре в 14 из 18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региона появились бесплатные пункты проката. В их фондах - кресла-коляски, трости, ходунки взрослые и детские, различные костыли,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ые кровати, противопролежневые матрасы, столики прикроватные и прочее. За время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заключено около 900 договоров, выдано более 1000 единиц оборудования. На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пунктов проката из бюдж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ыделено более трех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 В Макаровском районе будет внедрена программа инициативного бюджетирования

Она позволит жителям сахалинских сел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определять, какие общественно значимые проекты следует реализовать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на их территории. Суть программы со специалистам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финансов обсудили жители Поречья.

Министерством финансов проводится большая работа по вовлечению граждан в обсуждение и принятие конкретных бюджетных решений. С начала года мы посетили десятки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острова и поняли, что сахалинцам это интересно. Это дает людям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явить себя, выбрать значимые для них проекты, самим осуществлять контроль, принимать готовые объекты, а самое главное следить за их сохранностью. Сегодня первые пилотные проекты успешно реализуются в Углегорском районе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 рассказала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бюджетной политики област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финансов Елена Матвеева.

Первая встреча с жителями села Поречье носила ознакомительный характер. Люди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узнать о всех плюсах программы инициативного бюджетирования и уже готовы были предложить свои варианты проектов. Речь шла о спортивной площадке, ремонте сельского клуба и уличном освещении.

- Торопиться не стоит. Сегодня в муниципальном образовании ведется только разъяснительная работа, у жителей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размыслить и определиться в приоритетах. И уже в сентябре провести собрание и проголосовать. В рамках инициативного бюджетирования - это могут быть объекты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культуры, автомобильные дороги и даже муниципальные бани.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размер субсидии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на реализацию одного проекта не может превышать 3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местного бюджета 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жителей, - пояснила Елена Матвеева.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активным сельжанам предстоит обсудить с между собой свои замыслы и определиться с выбором. Все обязательства, связанные с подготовкой конкурсной документации, возьмет на себя районн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В январе 2018 года предстоит провести областной конкурс проектов.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получат только проекты - победители. Далее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м будет объявлен аукцион и определен подрядчик, который и воплотит задуманное в жизнь. Программа инициативного бюджетирования - долгосрочная. В

2018 году она будет внедрена во все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области.

## На Сахалине началась активная кормозаготовительная кампания

Заготовка кормов на зимне-стойловый период ведется во всех сельхозпредприятиях и фермерских хозяйствах региона. С ходом работ на полях совхозо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и «Корсаковский» ознакомились руководители министерства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области.

Как рассказала главе профи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Светлана Пахомова,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в совхозе содержится почти 4 тысячи коров. Половина стада - животные мясн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нескольких пород: герефордской, абердин-ангусской, казахской белоголовой и шароле. Заготовить для них достаточное количество кормов помогает современная техника, приобретенная за счет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 В совхозе 54 новые сельхозмашины, среди которых и техника, позволяющая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о время уборки упаковывать сено в полиэтилен. Задача совхоза заготовить около 30 тысяч тонн кормов. И это вполне реально, благодаря полному переоснащению. Для сравнения, в прошлом году мы смогли заготовить всего 20 тысяч тонн сенажа за три летних месяца. А сейчас за пять дней - 7 тысяч тонн, это очень высокий результат, - делит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Светлана Пахомова.

В селе Раздольном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уже построены и заполняются новые силосные траншеи. Размер каждого бетонного сооружения 90 на 18 метров. Их основная задача - защитить силосную массу от доступа воздуха, проникновения воды и промерзания. Всё это делается, чтобы в зимний период обеспечить крупный рогатый скот сочными кормами. Осенью здесь будет введена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новая молочно-товарная ферма на тысячу голов.

- Животноводств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ется. Реализуются крупные проекты по увеличению поголовья молочного и мясного скота. Сейчас ведется важная и ответственная работа - сенокосение и кормозаготовка. Развернулись все сельхозхозяйства региона. Задача - обеспечить животных высококачественными кормами на всю предстоящую зиму. От этого будет зависеть привес скота, уровень надоя и так далее. В этом году мы рассчитываем выйти на самообеспечение грубыми и влажными кормами и завозить только концентрированные корма, - подчеркнул, подводя итоги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министра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области Александр Якуша.

## Сахалин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ще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развития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Эту работу будет курировать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ергей Подольняк.

Его характеризуют как опытного управленца, обладающего богатым опытом в решении вопросов развития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налаживании с этой целью продуктивных контактов между различными уровнями власти. Накануне зампред встретился с главой Корсаков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Александром Рудаковым.

Улучшение условий жизни граждан – главная задача, которая сегодня решается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сообщил в ходе разговора мэр. Развернуты работы по асфальтированию улиц и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дворов.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приводятся в порядок социальные объекты – школы, детские сады и больницы. Строится жилье.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ено решению вопросов тепло- и водоснабжения граждан. Александр Рудаков рассказал о проектах, которые муниципальные власти уже реализуют и планируют начать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 жизни района наметились положительные изменения. Уже сегодня многое делается, но, очевидно, что имеющийся потенциал пока используется не в полной мере, - отметил Сергей Подольняк. - Нам необходимо оценить текущую ситуацию и рассмотреть возможности ускорени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Корсаковского округа. Чтобы решить эту задачу требуется найт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организационные и финансовые ресурсы.

Развивать местную экономику более быстрыми темпами, считает он, позволит введенный здесь особый режим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рсаковский район ранее вошел в состав свободного порта Владивосток. Реализуются здесь и проекты в рамках региональных территорий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Для бизнес-структур предусмотрены различные преференции, к примеру, льготы по налогам на землю, имущество и прибыль. Все эти меры направлены на создание новых производств и рабочих мест, увеличение налоговой базы.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доходы, которые получит район, позволят уделять больше внимания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е.

Сергей Подольняк сказал, что намерен усилить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о всеми властными структурами от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до федерального уровня для ускорения процессов,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т вывести Корсаковский район на новый уровень развити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재외동포재단, CIS지역 한국어교사 초청연수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주철기)은 러시아·CIS 지역 고려인 한국어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26일(수)부터 8월 30일(수)까지 총 5주간 이화여대 언어교육원에서 'CIS지역 한국어교사 초청연수'를 실시한다.

개회식은 26일(수) 이화여대 이삼봉홀에서 주철기 이사장과 이해영 이화여대 언어교육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동포사회의 세대교체에 따른 차세대 민족교육자 육성과 한국어 교사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에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에서 온 고려인 한글학교 교사와 한국어 강사 3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사전 진단평가를 통해 한국어 능력별 분반 수업에 참여하고, 교

수법과 개인 맞춤형 마이크로 학습, 모의수업을 통해 한국어 교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교수법 강의는 의사소통을 위한 문법·어휘·이해·표현 중심으로 매주 순차 진행되고, 이후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응용 가능한 한국어 교수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 학습 시간도 운영된다.

한국어 수업 이외에도 역사·문화 특강, 한국 문화 체험과 실습 등을 통해 한민족 뿌리 의식을 제고하고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올해는 고려인 중앙아시아 이주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고려인 독립운동사 등의 역사 강의와 함께 독립기념관을 방문한다.

또, DMZ 및 창덕궁·중

묘 탐방, 전주 및 무주 지역 탐방 등 역사적 현장과 한국 문화를 몸소 느낄 수 있는 체험 활동을 통해 한민족 자긍심을 일깨우는 시간을 갖는다.

전통 예술 문화 강습도 병행된다. 참가자들은 5주간 매주 월요일 부채춤과 사물놀이 강습을 받은 후 폐회식에서 기념 공연을 펼칠 계획이다.

주철기 이사장은 "러시아·CIS 지역 고려인 한국어 교사들은 한민족 문화와 우리말을 후대에 전파하고 있다고 있다"며, "이번 연수가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를 올바르게 전파할 수 있는 교육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러시아·CIS 지역 차세대 고려인들에게 한민족 정체성을 심어주는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 [우리말로 깨닫다]

### 전주(全州)라는 이름

옛 역사서를 읽을 때 나에게 제일 눈이 가는 것은 지명(地名)이다. 요즘 말과 얼마나 닮아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어떤 수수께끼보다 재미있다. 퍼즐을 하나씩 맞추다가 갑자기 큰 그림이 드러났을 때 느끼는 기쁨이라고나 할까? 우리나라의 어떤 도시를 방문할 때 그 도시의 이름에 관한 역사를 읽고 가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그러면 마치 오래 전부터 알던 곳을 방문하는 느낌도 난다.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전주(全州)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전주에 관한 역사를 읽다가 지명에 생각이 닿았다. 주(州)라는 한자는 고을이나 땅이라는 어휘이기에 특별함은 없다. 그런데 전(全)이라는 한자는 완전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완전한 고을이라는 뜻이 된다. 이 말은 모두가 좋은 마을, 모두에게 좋은 마을이라는 의미가 된다. 참 좋은 뜻이다.

전주라는 지명을 살펴보다가 전주의 옛 이름이 완주(完州), 완산주(完山州)임이 생각났다. 보통 한자 지명은 순우리말 지명을 훈독(訓讀)하여 바꾼 경우가 많다. 즉, 같은 뜻의 한자로 바꾸었다는 의미다. 따라서 완산주의 순우리말은 알 수 없으나 완산주나 완주가 원래 지명은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완주가 전주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것은 훈독의 원리에 비추어보면 너무도 당연하다. 완(完)이 곧 전(全)이기 때문이다.

완(完)과 전(全)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어휘는 아이러니하게도 <완전(完全)>이다. 완전이라는 말은 언어학에서는 같은 뜻의 말이 중첩되었다고 하여 동의중첩이라고 한다. <완전>은 모자라거나 흠이 없음을 나타내는 어휘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이라는 어휘에 주로 <무결(無缺)하다>라는 말을 덧붙인다. 완전무결하다는 표현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따

라서 완주와 전주는 같은 우리말을 한자로 달리 표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완전하다와 비슷한 말 중에 <온전하다>가 있어서 흥미롭다. '온전하다'라는 어휘는 구성이 특이한 어휘다. '온'은 순우리말이고, '전'은 한자어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설명한 완전은 같은 뜻의 한자어가 합쳐진 말이지만, <온전>은 같은 뜻의 순우리말과 한자어가 합쳐진 어휘이다. 온과 전은 같은 의미의 단어이다. 그렇다면 완이나 전의 순우리말은 '온'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온'은 온종일이나 온 세상, 온 누리 등의 표현에서 나타난다. '모든, 완전히'의 의미를 담고 있다. 온은 접사로 '딱찬', '완전한', '전부의' 따위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도 쓰인다. (표준국어대사전) 한편 '온'은 형태상으로 볼 때 뒷말을 꾸미는 표현이다. 형용사의 관형형으로 볼 수 있다. '험다'와 '험', '출다'와 '출'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온과 관련이 있는 어휘는 <올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대어에는 올다라는 말이 없다.

재미있는 것은 중세국어에는 <올다>가 완전하다는 의미로 나온다는 점이다. 지금은 그 흔적이 '올바르다'나 '올곧다'에 남아 있다. '올바르다'를 '올고 바르다'의 합성어로 보기도 하나 '올다'라는 표현을 찾을 수 있다면 '올다'와 '바르다'의 합성어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유창돈 선생은 <어휘사 연구>에서 올다의 사용을 밝히고 있다. 올바르다는 완전히 바르다는 뜻으로, 올곧다는 완전히 곧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완전하다는 의미의 <온>을 백(百)을 나타내는 수사 <온>과 관계 짓는 논의도 있다. 백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숫자만이 아니라 '많다'는 의미, '모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온갖>이라는 말은 백 가지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여기에서 수수께끼를 하나 덧붙일 수 있겠다. 백제의 첫 임금인 이름이 온조(溫祚)이다. 여기에서 백과 온의 관련성은 없을까?

(출처: 재외동포신문)

### Уро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 한국 고전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했지요?

(전호의 계속)

#### 쓰기 연습 Письменные упражнения

1. 보기처럼 '-아/어/여 빠지다' 사용하여 밑줄 친 부분을 바꾸십시오.

보기 그 차는 낫았어요. → 그 차는 낫아 빠졌어요.

- (1) 이 목걸이는 너무 흔한 스타일이다. →
- (2) 그렇게 행동이 느려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
- (3) 요즘 정신이 씩은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
- (4) 지구에는 줄주려서 마른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
- (5) 이 신발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너무 낫아서 더 이상 신을 수가 없어요. →

2. 다음에서 괄호 속의 단어를 '-어(아, 여) 치우다'로 변형시켜 문장을 완성하세요.

보기 남은 음식을 다 (먹다) / 배가 불러 죽겠어요. → 남은 음식을 다 먹어 치웠더니 배가 불러 죽겠어요.

- (1)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까지 (하다) / 이제 할 일이 없네요. →
- (2) 오래 된 차를 새것으로 (바꾸다) / 기분까지 상쾌한 것 같아요. →
- (3) 거실의 양탄자를 (걷다) / 훨씬 넓어 보이네요. →
- (4) 오래된 물건들을 (팔다) / 속이 다 시원해요. →
- (5) 장사가 잘 안 되어서 (집다). →

3. 보기와 같이 '-아/어/여도 과연이 아니다'를 사용하여 대화를 완성하세요.

보기 가: 선수들이 얼마나 단합이 잘 되느냐에 따라 이번 시합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연이 아니예요.)

나: 이번 시합에 꼭 이기겠다는 각오로 선수 모두 한마음으로 뭉쳤으니까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겁니다.

- (1) 가: 중학생인 레나는 부모 없이 늙으신 할머니와 어린 동생들하고 함께 산다면서요? 나: 네, 그러니까 레나가 (가장이다).
- (2) 가: 지금은 컴퓨터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나: 맞아요. 컴퓨터를 모르면 (살 수가 없다).
- (3) 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 이는 전적으로 (증거 제시에 달리다).
- (4) 가: 이 약은 수많은 실험을 거쳐 인체에 해가 거의 없는 약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나: 그러니까 거의 (완벽하다).
- (5) 가: 이스폴 호수가 그렇게 아름답다면서요? 나: 중앙아시아의 (알프스다).

4. 보기처럼 '-았/었/였던지, -던지'를 사용하여 대화를 완성하세요.

보기 가: 오랜만에 등산하니까 힘들었죠? 나: 얼마나 힘들었던지 코를 골고 잤어요.

- (1) 가: 어제 저녁에 너무 다웠지요. 나: -----
- (2) 가: 김 대리, 속은 괜찮아요? 어제 저녁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시는 것 같던데. 나: -----
- (3) 가: 어제 애인하고 헤어지면서 많이 울었죠? 나: -----
- (4) 가: 코미디 프로그램 너무 재미있었지요? 나: -----
- (5) 가: 오랜만에 해외 여행을 다녀오시니까 좋으셨지요? 나: -----

5. 보기처럼 '-았/었/였던들'을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보기 열심히 공부해던들 대학 입학 시험에 떨어지겠 않았을 텐데.

- (1) ----- 지금은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되었을 텐데.
- (2) ----- 밤을 새면서까지 일을 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 (3) ----- 이렇게 길을 헤매지는 않았을 거야.
- (4) ----- 이렇게 나이 들어서 아프지 않았을 텐데.
- (5) ----- 헤어지지 않았을걸.

(계속)

(한국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교과서 자료 이용)

(사할린한국교육원 제공)

# 이모저모

## (2면의 계속)

용의자는 보통 같은 방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여왔다. 시장가보다 싼 가격으로 아파트를 임대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붙여 적잖은 관심이 모아지자 전화연락을 받은 임차인과는 중간 지점에서 만나 아파트 열쇠를 전달하면서 2만에서 3만 루블리 정도의 임대비 일부 또는 전체를 받는 방식이었다. 피해자인 임차인이 정해진 주소에 도착하여 받은 열쇠로 낫선 집문을 열려고 하자 문이 열리지 않는 순간 사기임을 알아채게 된 사건이다.

현재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용의자의 사기행각 방향의 추적이 진행되는 중이다. 이 사건으로 용의자는 지역외부로 이동차단의 조치가 취해졌다고 사할린주 경찰 수사국 홍보실이 전했다.

## Квартирная мошенница обманула 11 сахалинцев

Сотрудники уголовного розыска управления МВД России по Южно-Сахалинску в ходе проведения оперативно-разыск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установили личность подозреваемой в совершении серии мошеннических действий.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полицейским известно об 11 эпизодах хищений чужого имущества путем обмана 40-летней южносахалинки.

Как правило, злоумышленница действовала по одной схеме: женщина размещала объявление о сдаче квартиры по стоимости ниже среднерыночной, что не могло не привлечь повышенного внимания. Затем следовал телефонный звонок, договор о встрече с потенциальным квартиросъемщиком на нейтральной территории, во время которой она передавала связку ключей и принимала часть или полную стоимость оплаты. Суммы варьировались от 3 до 20 тысяч рублей. Когда потерпевшие приезжали на указанные адреса и их попытки открыть чужую входную дверь выданными ключами были тщетны, они понимали, что их обманул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роводятся следственные действия,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сбор и закрепление доказательственной базы. В отношении гражданки избрана мера пресечения в виде подписки о невыезде,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사할린주 권투연맹 회장, 붉은 광장에서 권투시합교실 진행

올림픽 챔피언 2관왕인 올렉 사이토브 사할린주

권투연맹 회장은 3000명이 참가하는 가장 대중적인 시합을 열었다.

알려진 바로는 권투시합교실은 수도 붉은 광장에서 국내 역사상 첫 러시아 권투의 날을 축하하는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올레그 사이토브의 지도로 이 권투수업은 기네스북에 들어가게 되었다.

"기네스북에 올리기 위해서는 꾸준히 움직여야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포기했다라면 이 기록은 인정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붉은 광장에는 시합 감찰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도의 중심에 3000명이 모인 것 외에도 러시아의 각기 다른 도시들에서도 동시에 1만명이 권투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라고 올레그 사이토브는 전했다.

올레 사이토브는 2월 말에 러시아권투연맹 소속 챔피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정된 바 있다.

공개 권투수업에는 역시 올림픽 챔피언 2관왕인 보리스 라구틴과 알렉세이 티셴코가 참가했다. 2015년에 이와 유사한 권투교실이 이미 러시아에서 진행되었었다. 그때는 미국의 권투선수 플로이드 메이웨더(Floyd Mayweather)가 진행하여 광장에 약 800명이 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 Глава федерации бокса Сахалина провел мастер-класс на Красной площади

Двукратный олимпийский чемпион, глава Сахалинской федерации бокса Олег Саитов провел самую массовую тренировку, в которой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три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Ка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мастер-класс прошел в рамках празднования первого в истории страны Дня российского бокса на Красной площади столицы. Тренировка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Олега Саитова вошла в Книгу рекордов Гиннеса.

- Для того чтобы рекорд был зафиксирован, необходимо было постоянно двигаться. Если бы хоть один человек остановился, то его бы не засчитали. Для этого на Красной площади находились наблюдатели. Помимо того, что в центре столицы собралось три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еще десять тысяч провели тренировки в это же время в других городах России, - поделился Олег Саитов.

Напомним, что Олег Саитов в конце февраля был назначен председателем совета чемпионов при Федерации бокса России.

В открытой тренировке такж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двукратные олимпийские чемпионы Борис Лагутин и Алексей Тищенко. В 2015 году подобный мастер-класс уже проходил в России. Ее провел известный американский боксер Флойд Мэйуэзер. Тогда на площади собралось около 800 человек.

(사할린주 및 한국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 감사합니다!

지난 6월 8일 사할린한인 1세 25명이 보호자 16명과 함께 한국에서 무료진료를 받기 위해 <아시아나>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날부터 대한민국이 우리를 따뜻하게 포용해주었습니다.

한국국체보건의료재단(이사장 인요한)의 재외동포보건의료지원사업 일환으로 우리는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하여 종합진료·치료를 무료로 잘 받고 돌아왔습니다. 사심 없이 친절하게 우리를 정성껏 돌봐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고 아울러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할린 측에서 노인들의 출입국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수고하신 사할린주한인회 박순옥 회장, 주노인회 김홍지 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사할린한인 1세 니시오 따애교(호적명 전채련) 올림

## 새고려신문사 기자 채용 공고

새고려신문사는 젊은 기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어로 취재, 한국어능력은 기초급이다. 컴퓨터는 기초, 러시아어 타자. 견습기간 3개월.

문의 전화: 43-67-85, 43-59-80.

본사편집부

Redakcija gazety «Sэ kore sinmun» приглашает желающих на работу на должность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испытательный срок 3 месяц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 43-67-85, 43-59-80

(с 10.00 до 15.00).

## 새고려신문 살리자

###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Redakcija gazety «Сэ kore sinmun»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SAKH.COM БИЛЕТ

Билеты на концерты, в театр, кино  
Покупай онлайн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a href="mailto:skr@sakhalin.ru">skr@sakhalin.ru</a> <a href="http://cafe.naver.com/sekoreasinmun">http://cafe.naver.com/sekoreasinmun</a></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